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지난달 23일 한국종합전시장 회의실에서 제6회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정보통신부의 주관아래 개최했다.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정보문화센터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DB산업의 특성과 육성방향(이두영 중앙대학교 교수), DB업계의 문제와 대응전략(진영돈 한국DB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보통신부의 DB산업 육성 정책(김 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주요 선진국의 DB육성 정책(정현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DB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특성과 육성 방향 - 이두영 중앙대학교 교수 -

DB란 문자, 기호, 도형, 음성, 화상,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조직, 분석, 가공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축적·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DB산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 업체(자)들이 서로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DB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 정보기기, 네트워크, S/W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 정보처리기술의 혁신 등 국가기반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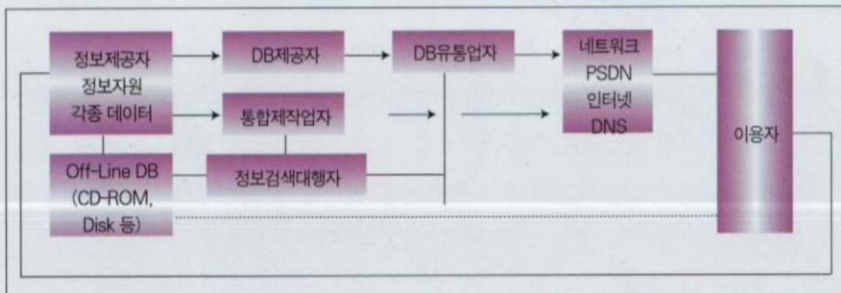
▲ 제6회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는 관련분야 종사자의 열띤 관심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 정보자원의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
- 인터넷 등 온라인 PC통신망을 통하여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중요한 정보자원을 신속하게 획득하고, 한편 국내 정보를 세계 각국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수단이 된다.

■ 한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 DB산업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DB(IP)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DB산업체 내적인 자
구적 발전방안의 모색과 산업체 외적인 주체가 생각하는
육성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DB산업은 아직 전문성 부족, 시장규모의 협
소에 따른 투자의 위험부담 등으로 지금까지는 정보제공업
(IP)과 DB제작업을 겸업하거나 DB제작업과 DB유통업
을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몇몇 대표적인 DB유
통업체들에 의해 상당 부분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DB유통업과 달리 IP사업은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의 업종일 수 밖에 없다는 점
과 앞으로 정보 콘텐츠 산업이 미디어나 정보기기 분야 보
다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P사업은 앞으
로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IP사업자들은 정보가 이용자들의 필요
(needs)를 어느 만큼 만족시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needs 조사·분석 등 아이템 창조의 주체성과
정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통해 IP사
업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업계의 문제와 대응 전략

- 진영돈 한국DB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대 사회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속한 속도
로 변화하는 시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중요한
요체는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수와 그 활용으로서,
정보의 활용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생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국
가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은 누가
먼저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 및 지
식을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정보의 최적활용을 통하여 21세기에
서도 선도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의 효율
적인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서비
스 활성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하여 조금 늦기는 하였으나 정
보화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정보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정보화
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회 전분야에서
정보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21세기 초고속
정보시대의 도구인 정보고속도로를 오고갈 핵심인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 구축 및 서비스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제도
적인 기틀을 만들고 있다.

2015년까지 약 45조원을 투입하여 정보고속도로를 건
설하고 정보고속도로를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
정에서 취득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온라인 통신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혁명으로 우리
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 핵심적인 역할은 정보고속도로를
오고갈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이
라 할 수 있다. 정보고속도로의 구축과 함께 동반하여 개
발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중대한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범국가적으로 정보화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나 실질적
으로 그 중요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문제점을 조함을 운영하면
서, 또한 실제 현업에서 느낀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살펴보
았으나 기술적인 부분과 그 외에도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부분인 법제도적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한 시
점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국민 모두가 원활하게 취득하여 생활에 이용하고,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이윤이 발생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 베이스 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위에서 단편적으
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확고
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듯이 정보화 사회가 도

래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현재에 이른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국가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으나 바로 그 정부 주도하의 산업 정책에 발목을 잡혀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 물결에 순응하지 못하고 6, 70년대의 미망에 사로잡혀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현재 IMF관리 체제하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CD와 같은 OFF LINE 으로 서비스하는 방법도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통신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때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구축이 완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상업적 차원에서 성립되어 발달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의 이용자 환경은 데이터베이스 개발 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했다고는 할수 없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문제점이 발생하고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이 종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였으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우 아직 유아단계의 산업이고 근본적으로 수익성을 가질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원이 정부에 있으며,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정 시점까지는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와 제약 사항을 개선한다면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사업으로 건설할 정보고속도로를 통해 유통시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사업은 21세기에 세계와 경쟁할 국가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뒤질수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의 정책이 뒷바침 된다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내일은 밝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반드시 육성 시켜야할 미래의 우리 기간산업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

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DB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보자원의 축적, 가공, 유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은 정보자원의 축적 및 가공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정보자원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적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자원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해 전자도서관의 전략적인 활용방안 및 체계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보자원 계층 수준의 보편성 개념을 정립하고 도입전략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현행 정보화 추진에서 정보자원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여 정보자원의 축적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설정하고 지적자산의 축적을 위한 국가전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자원을 축적하고 가공, 유통하는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정보자원을 축적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축적된 정보자원은 국가사회의 중요한 정보통신 기반을 형성하고 공공부문이 비록 잠재적이기는 하나 양질의 정보자원 (원시정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자원의 축적과 가공, 유통, 활용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추진조직은 정보자원 축적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추진조직을 통해 통합된 국가적 노력이 도출되어야 한다.

추진조직이나 관련 이슈에 관한 협력의 부진은 결국 정보자원의 유통이나 국가정보통합환경의 구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추진체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국가정보통합환경의 구축을 위한 공급측면의 분산화와 수요측면의 통합화의 조화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